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중 8O5호(만성등, 오케이터위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2025년 6월 12일(목) 제 3110호

'창업하기 좋은 전북' 민간 생태계 본격화

道,TIPS운영사6곳첫선정 벤처펀드 2,690억 조성 추진 외국인 창업비자도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 중심 창업지 원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창업하기 좋은 전북' 실현을 목표로 △민간주도 창업지원 △공공실증 기반 판로 확대 △성장단 계별 맞춤형 지원 △벤처투자 인프라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본격 추진하 고 있다.

도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팁스(TIPS) 운영 사 6곳을 선정하고, 유망 스타트업 60개 사를 발굴·육성하는 전략에 착수했다.

팁스는 민간이 1억 원 이상 선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17억 원까지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대표 창업 프로그램으로, 각 운영사들은 3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한 기업을 중심으로 TIPS 추천·육성에 나선다.

창업지원 공간도 확대되고 있다. 도 는 지난 3월 전주한옥마을에 민간 스타 트업 지원기관들이 집적된 '키움공간' 을 개소한 데 이어, 익산역 인근에 식 품·바이오 특화 키움공간을 추가 조성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 제품 의 실증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민간 주도형 스케일업 실증지원' 사업도 새 롭게 시작된다.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에도 속도 가 붙고 있다. 예비·초기·도약단계 기

업 381개사에 총 191억 원을 투입해 맞 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청 년혁신가(33팀), 전북형 창업패키지(13 개사), 창업도약패키지(19개사) 등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 판로, 투자유치까 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신보 등과 연계한 특 례보증 및 이차보전 금융지원도 병행 되며, 재도전 성공패키지(4년간 92억 원)와 중장년 창업 특화센터(5천만 원) 를 통해 재창업자와 중장년 창업도 지 원하고 있다.

전북 벤처 투자 생태계 육성도 가속 화되고 있다. 도는 올해 총 9개 펀드를 통해 2,69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 성할 계획이다. 이미 3개 펀드 850억 원을 조성 중이며, 6월까지 전북 벤처 펀드를 운용할 6개 투자사를 추가로 선 정해 연내 펀드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 다. 이로써 도 전체 벤처펀드는 총 31 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사업도 신규 추진돼, 유망 벤처·스타트업 30개사를 모집해 6~12 월 간 IR 라운드 6회를 개최하고, 투자 사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컨설팅 도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도 진행 중이다. 도는 중기부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와 연계해 2023년 5개사, 2024년 3개사, 올해는 4 개 유망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며, 대 체식품·스마트팜 등 지역 주력산업과 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숏품도 전주' 세계 1위 숏폼드라마 플랫폼 '릴숏'에서 전주를 배경으로 한 국내 최초 숏폼드라마 '구미호, 운명의 짝'이 방영되고 있다. <사진=릴숏>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민주,총리산하국가수사위구성 "검찰개혁 이번에 반드시 완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 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청', '국 사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공정사회 포럼(처럼회)' 소속 민 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 문수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 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 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행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 하에 공소청을 신설해서 공소만을 전담 하도록 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해서 실시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대 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 다. 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검찰청의 현 1천200여명의 검사 중 수사인력은 사실상 경찰이 흡수하고,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가 사실상 수사를 총괄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 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면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 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 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 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 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 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 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 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 상화"라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

/서울=김영묵기자

여산휴게소,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새출발

11일 휴게소본관서 간판 제막식 이춘석 의원, 명칭 변경 이끌어내

이춘석 더 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11일 호남고 속도로 익산 미륵사지휴 본관에서 간

이춘석 의원

판 제막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익산시 유일의 고속도로 휴게소인 익 산미륵사지휴게소는 1976년 개장 후 여산휴게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그 러나 이 명칭은 익산 지명과 지역 특성 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

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0년 익산시 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 서도 응답자의 71%가 명칭 변경에 찬 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을 바탕으로 익산시는 명칭 변경 을 본격 추진했지만, 현실적인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익산의 정체성을 반 영한 명칭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 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주 무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직접 협의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한국도로 공사의 전향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며 마 침내 명칭 변경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를 넘어, 세계유산 미륵사지 와 익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마 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전주 배경 국내 첫 숏폼드라마 '구미호' 세계 방영

영화 드라마 이어 숏폼 인기 '릴숏' 세계에 전주 소개 기회

전북자치도 전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글로벌 인기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폭 싹 속았수다', '당신의 맛' 등에 이어 세 계 1위 숏폼 드라마 플랫폼에서 방영이 시작된 국내 최초의 숏폼드라마도 촬영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뜨거운 관심 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세계 1위 숏폼 드라마 플랫

폼인 '릴숏'(Reel Short)에서 지난 4일부 목한 인기작 'Fated to My Forbidden 공존하는 전주의 매력들이 공개되면 많 로 촬영된 우리나라 최초의 숏폼드라마 인 '구미호, 운명의 짝'이 방영되고 있다 고 11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3월부터 릴숏과 대한 은다. 민국 최고의 숏폼드라마 제작사인 '문 프로덕션'과 '흰구름'과 손잡고 전주 곳 곳이 배경이 된 숏폼드라마를 최초로 공동 제작했다.

이 드라마는 릴숏에서 2억 뷰를 기

재 간의 운명적인 사랑과 갈등을 한국 로기대하고 있다. 적인 스토리로 다뤄 전 세계 시청자들 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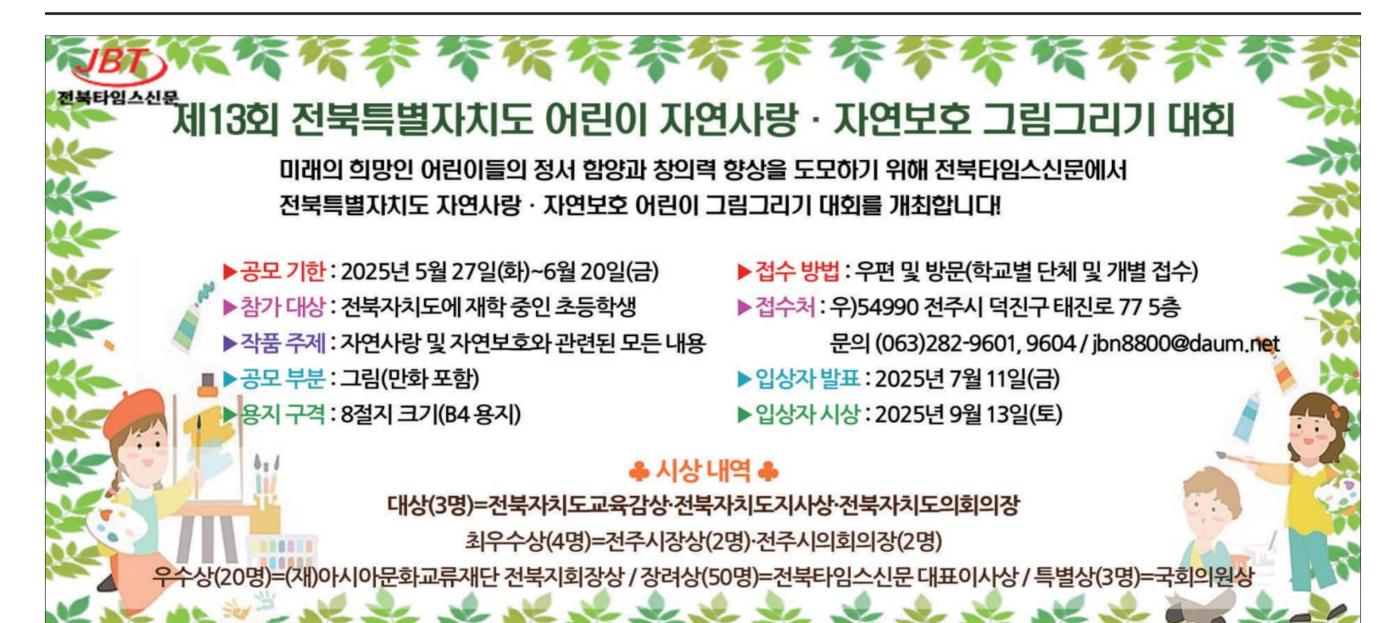
특히 작품의 촬영지로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의 여러 명소가 선택돼 드라마 를 통해 전주의 멋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이 숏폼드라마를 통해 전통과 현재가

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배경으 Alpha'를 원작으로 인간과 초자연적 존 은 관광객을 유도하는 기회가 될 것으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해부터 전주에서 촬영을 마친 '당 신의 맛'이라는 드라마가 최근 방송을 시작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번 '구미호, 운명의 짝' 숏폼 드라마도 전주 에서 촬영한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의회 중계석

김대중 도의원 "대한민국 대표산업, 전북에는 없다"

기업유치정책 재점검 요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 원(익산 1)은 11일 제419회 정례회 자 리에서 김관영 도지시를 상대로 도정현 안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에 대해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 권에 위치한 도 산하기관을 다른 지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 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 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 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 가 상승에 도민들은 분양가 결정내 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 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우선해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 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



비 부담에 대한 주장이다. 대책은 무엇인 지 날카로운 질 문을 이었다.

르면 "대광법

서 과도한 지방 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는

도가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 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김의원에 따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끝으로 김관영 지사에 김의원은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 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게 "전북 내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 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잇따른 분양 역 자체를 모른다며 깜깜이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태 기자

임승식 도의원 "인공지능돌봄인형 실효성 의무"

보여주기 예산낭비 정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 (정읍1)은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 의 도정질문에서 통해 전북자치도 인 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의 실효 성 부족과 행정적 문제를 강하게 지 개선 폭은 평균 1점 수준으로 통계적 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3월 도지사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세 부 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7월 기 다. 기 보급이 시작되는 등 매우 빠르게 추진됐다"며,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에 다.

서 실시한 2023 억력과 우울감

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2024년에는 오 히려 예산을 증액해 사업을 지속했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책적

요한 사업"이라 성과 분석 자료와 예산 대비 효과 수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

임 의원은 "업체 선정부터 사용자 년 자체평가 자 관리, 회수·수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 료에 따르면, 기 군 치매안심센터에 전가됐지만, 이를 위한 명확한 운영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인형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보 다 시급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돌봄 인력 확충 등에 사용될 수 있었 던 재정 자원이 실효성 없는 사업에 이에 임 의원은 "총 5억 1천 3백만 투입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정종복도의원 "인센티브 개선 등 대대적 쇄신" 촉구

공공기관 이전 성과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 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 의원이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 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종복 의원은 전북 도정과 관 련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된 부실한 성과를 지 총 3건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 적하며 교육감의 공감과 개선 의지를 적하며,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인센티 위행위가 있었고, 고위공무원 특성상 브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 이들의 이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행



"기관의 이전 성 격에 따른 유치 활동 다양화, 이 티브 개선 등 대

대적인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이 시 급하다"고 지적했다.

정공백도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 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은 다"라며, "감사위의 조사 기간을 줄이 는 등 신속한 후임자 발령을 위한 개 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과 전에 따른 인센 서서학동, 평화1-2동의 경우 인구 7 만명, 학생수 5천명에 달하지만 인문 계 고등학교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 이라며, "동등한 교육권과 이동권에 이어 정종복 의원은 "민선8기 이후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

/김영태 기자

정동영 의원, AI G3 강국 전략 조찬포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 북 전주시병)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공동주최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시즌2)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11일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

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련되었다. 정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 에서 AI의 입지를 확인하고, 어떤 역 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밝

정부를 대표해 송상훈 과기정통부 실장 은 AI 관련 사업들이 1차 추경에 반영되었 고, 일부는 2차 추경 편성 과정에 포함되어 이번 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 있으며 반영되지 못한 과제들은 내년도 예 석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AI의 구조 산안에 포함해 AI 기반 재난 예방 및 대응 적 변화와 역할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 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 있게 검토할 것임 을 밝혔다.

> 국회는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 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 /정재근 기자

새 정부에 바란다

소재철 "지역균형 개발·발전 약속 지켜야"

위한 구체적

인 건설 전

만, 내부 도

로망 등 주요

"전북을 국가 경쟁력 재건 중심으로 삼아야"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의 쇠퇴와 수 도권의 과밀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은 단순히 지역경제 문제를 넘어, 국 가적인 균형과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북특 별자치도는, 수십 년간 국가균형발전 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발 전을 이끌어 내지 못한 지역으로 남 아 있다. 이제는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

어 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치단체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재건 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때다. 전북의 구는 바로 '건설'이다. 전북을 위한 건 설은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작업이 며,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직 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새만금, 국책사업 모델로 재탄생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 프로젝 트로 손꼽히는 새만금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의 어려움과 지연 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새만금을 단 순히 간척지 개발로 그치지 않고, '지 속가능한 도시 건설 모델'로 재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트 인프라와 친환경 건축, 재생 가 과 직결된다. 능 에너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



소재철 회장

인프라의 조 업단지의 민관 협력형 개발모델 설계 가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 유 치를 위한 기반 시설 선투자 및 복합 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다.

△광역건설 인프라 구축

새 정부는 전북을 단지 한 지방자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간의 광역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 했다. 이제는 전라선 고속철도(KTX) 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확장, 군산항 의 국제 물류기지화 등 전북 내 교통 망을 전국과 글로벌 연결망으로 확장 해야 하며, 이러한 교통·물류 인프라 는 기억해야 한다. 의 확장은 산업 유치뿐만 아니라, 청 년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설산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

많은 관련 산업과 직업군을 포함한 복합적인 분야다. 전북은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 새만금은 그 자체로 미래 도시를 위 기 때문에,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한 중요한 실험장이 될 수 있기에 스 은 곧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

지역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 우선 대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돋움해야 참여 제도를 확대하고, 전북형 청년

건설기술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 새 만 금 을 래형 건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정주환경 개선 전북의 많은 도시들은 노후화된 도 략으로는 국 시기반시설과 쇠퇴한 구도심 문제를 제공항, 신항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형 도 시재생 뉴딜 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 역사 문화시 기 완공과 함께, 수변도시와 배후 산 설 리모델링과 공공도서관, 청년주택 같은 생활 SOC 복합시설을 확충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

전북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 전북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너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녹색건설 특화지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시티 건설과, 전통 건축기법과 현대기술을 결합한 로컬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대 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새 정부

△건설 통한 대담한 투자

전북의 발전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 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 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건설을 통 건설산업은 단순한 시공을 넘어 수 해 산업을 짓고, 사람의 삶을 짓고, 도 시의 품격을 짓는 것이 바로 전북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전북 을 국가 경쟁력 재건의 중심으로 삼 고, 대담한 투자와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전북을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 들어 가야 한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도내 유일 무인 환전 서비스

충경로251층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 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 충경로 25 1 층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과 전북특 별자치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쇼핑트래블라 운지에 무인 환전 키오스크 '와우패스 (WOWPASS)'를 설치하고 지난 9일부 터 서비스 운영을 개시했다.

무인 환전 서비스는 최근 전북특별 자치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자유 여행 객이 증가하고, 주말 환전 수요가 꾸 준히 늘어남에 따라 도입됐다.

특히, 이 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이 아닌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은 행보다 낮은 환전 수수료를 제공하는 점이 큰 장점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무인 환 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전북쇼핑트래블라 운지에 설치된 무인 환전 키오스크를 통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도 내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다.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10시 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총 16개국 통



MONEY EXCHANGE

화(원화포함)를 간편하게 원화로 환 전할 수 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와우패스 무인 환전 키오스크 도입을 통해 외국인 관 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내 관광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기요금 아끼는



실천 절약 팁



시간대별 요금제

적극 활용 하기



스마트폰 콘센트. 절전

멀티탭 사용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 사용



냉방 . 난방기 적정 온도 유지

전주시-폴란드 제슈프시, 미래 첨단산업 협력

친환경 항공산업 첨단 탄소복합재 중심 상호 경제 발전 약속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항공우주산업과 탄소복합재,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경제발전을 위해 폴란드 제슈프시와 손을 맞잡았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0 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 폴란드 제슈프시청에서 우범기 전주 시장과 콘라드 피요엑(Conrad Fijolek) 제 슈프시장을 비롯한 양 도시 주요 관계자 및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경제 발전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 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 도시가 상호 신뢰와 이 을 심층 탐색하기도 했다. 익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 고, 경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항공우주 산 업, 탄소복합재 산업 등 전략 산업 분야에 서의 기업 간 교류 활성화 △산업단지 방

문과 기업 간담회 개최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협력 모색 △연구기관, 대학, 교육기 관, 협회 등과의 교류 촉진 등이다.

특히 양 도시는 이러한 협력 활동을 통 해 상호 경제발전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 태계 구축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와 제슈프시는 MOU 체결 직후에 는 양국 기업인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기 업 간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 과 투자, 기술 교류 등 실질적 협력 기능성

이와 함께 우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 표단은 제슈프시 인근 항공산업 클러스터 인 '항공밸리(Aviation Valley)'와 글로벌 항공엔진 기업인 'MTU 에어로엔진스 폴 츠카(MTU Aero Engines Polska)'를 방문 해 양 도시의 항공우주 산업 협력 가능성

이번 기업 방문은 지난 1월 전주시 탄소 기업인 '㈜비나텍'과 독일 항공기 엔진 제 조 분야의 선도기업인 'MTU 에어로엔진 스'간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을 위한 막전극집합체(MEA) 공급 계약 체 결의 연장선으로, 시가 항공우주 및 친환경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항공우주산업과 탄소복합재,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경제발전을 위해 폴란드 제슈프시와 손을 맞잡았다 <사진=전주시>

에너지 분야 등첨단 미래산업에서 지역 기 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을 적극 지원하 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제슈프시와 긴밀한 협력 채널 을 유지하며,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간 실 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MOU는 양 도 시가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 력의 장을 여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 라며 "폴란드 제슈프시와 물리적 거리를 넘어 혁신과 번영을 함께 이끌어갈 든든 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일본드론축구연맹 대표단,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 방문

국제교류·협력 강화 드론스포츠복합센터 등 점검

일본드론축구연맹 대표단이 한일 간 드 론축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드 론축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드론 축구 종주도시이자 2025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도시인 전주를 방문해 관심을 끌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나카자키 히로유 키(NAKAZAKI HIROYUKI) 회장을 비롯 한 일본드론축구연맹(Japan DroneSoccer Federation) 대표단 3명이 지난 10일부터 3 박 4일의 일정으로 드론축구 종주도시이자 월드컵 개최도시인 전주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한・일 양국 간 드론축구 분 야 국제교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또 오는 9월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드론축 구월드컵' 준비를 위한 시전 답사 및 한국 의 드론축구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목석에 서 이뤄졌다.

일본드론축구연맹 대표단은 이번 전주 방문에서 전주시와 국제드론축구연맹, 대 한드론축구협회 등과 함께 전주월드컵경 기장 내 건립 중인 세계 유일의 드론축구 전용구장인 '드론스포츠복합센터'의 건축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해 8개 프로리그팀 과 함께 출범한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의 운영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참관할 예정

또한 일본 선수단의 전주 방문에 대비해 드론축구월드컵 기간 중 진행될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와 사전 답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11월 설립된 일본 드론축구연맹은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20개국 회원국)의 정회원으로, 가장 많은 회원국(9개국)을 보유한 아시아대륙의 연 맹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드론축구연맹은 지난 2019년 12월 일본 오이타현에서 선수시 드돈축구단과 의 시범경기를 계기로 양국 간 지속적인 협



력을 이어왔으며, 2022년부터는 드론축구 챔피언십과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월드 챔피언십 등 드론축구 국제대회에 적극 참 가하며 실력을 꾸준히 키워오며 드론축구 의 저변 확대와 육성에도 전방위적인 노력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월드컵 대 라고 밝혔다.

회에서도 일본 대표팀의 활약과 높은 성 적이 기대되고 있다.

나카자키 히로유키 일본드론축구연맹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를 벤치마킹하고, 일본 선수단의 월드컵 잠여 순비에 만선을 기할 계획"이 /정재근 기자

전주시, 치매관리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2025년 광역-치매안심센터 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전 워크숍'은 도내 14개 시군 치매 안심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치매 관리 사업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 창, 지역 및 중앙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2025년 치매 관리 사업의 발 전 방향을 모색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우수기관평가는 지난해 치 매 관리 사업 수행 내용 전반에 대 한 14개 시군 정성평가 순위로 평가 가 이뤄졌다.

전주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을 대상 으로 △조호물품 및 치매 치료관리 비 지원 △가정방문 맞춤형 사례 관 리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 매 조기 검진 △고위험군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등 시민 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이바지했다. 또한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치매 인식개선 및 교육 · 홍보를 통해 치

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온

특히 진북동 치매 안심마을 디지 털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 마을 내 거주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 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자 등 관리 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 공지능(AI) 안부전화 서비스 △IoT 센서 설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 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 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전주시민들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 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치매 안심센터는 통합적이고 선도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환 자와 가족,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에코도서관, 가족중심 문화공간 '우뚝'

주말 평균 8백명 이상 개관후 5만2천여명 방문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 새로 들어선 에 이 다녀갔다. 코도서관이 평소 가족중심의 높은 이용율 을 보이며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공간으 6000여 권에 달하고, 멀리 떨어진 시립도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21일 개관한 에코도 서관에 주말마다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의 입관자 수를 기록하며 높은 이용률과 만 로나타났다. 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에코도서관은 시민들이 책과 함께 편안 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세병공원과 조 화를 이루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으 며, 개관 이후 두 달 만에 약 5만2000여 명

뿐만 아니라 누적 도서 대출권수는 2만 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 스도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 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간대에는 유아차가 에코도서관 앞에 줄 있는 체험형 코너인 '글 쓰는 달력 코너'와 지어 서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에코도서관이 단순히 도서 열람 기능을 넘어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용 창작소 '뚝딱'의 경우 새활용 재료와 다 양한 도구를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

또한 상시 운영되는 30개의 글감지를 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단위 이용객이 몰리는 오후 통해 누구나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글 쓰는 체험 공간'에도 이용자들의 발길 을 붙잡고 있다.

에코도서관은 이외에도 현재 세대별 독 서문화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 특히 에코도서관에 마련된 어린이 새활 며, 이 중 어린이 책놀이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시민들 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 에코도서관은 올 하반기에도 어린이 새 활용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특강 등 다양

> > /정재근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委, 수영장 실태 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 장 전윤미)는 11일 시민의 여가활동 과 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생활체육 시설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 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윤미 위원장 등 문화경제위 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주 덕진수영장 과 완산수영장, 라온체육센터 등 권 역별 수영장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각 수영장의 운영 인력 및 이용객 현황, 프로그램 운영, 편의시

설, 수질관리, 안전 실태 등 다양한 요 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전윤미 위원장은 "생활체육시설은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라며 "운영 효율성은 물론 안 전성과 이용 편의성까지 고려한 정책 적 지원은 물론 공공 체육시설의 지 역 간 불균형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공사

16일~8월 31일 임시 휴관 시민 접근성 개선·환경 정비

전북자치도 전주시 평화건강생활지원 센터는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공사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8월 31 혔다.

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 기 위해 수동식 리프트를 장애인용 엘리 베이터로 교체 설치하고, 2층 구강보건 실 개선과 건강증진실 및 보건교육실 바 닥재 교체 등 내부 환경을 정비할 계획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다.

센터는 휴관 기간 중 이용자들의 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을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어린이 집 및 유치원에 방문해 건강교실을 운영 하는 등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프로 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고 11일 밝 서비스의 경우에는 희망자 및 대기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맞춤형 재활서비스 센터측은 이번 공사에서 장애인 및 이 를 제공해 중단없이 서비스를 이용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 김학서 전주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장애인 이용 편 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전주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의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 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 억 원 미만인 전주시민이다.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과 사업 성격에 따라 청년층이 우선 선발 되며, △공공근로 사업 등 타일자리사업 참여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등은 신 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까지로, 시는 Δ 청년몰 매니저 사업 Δ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맛배달 홍보지원사업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사업 등 7개 부서, 8개 사업 에 총 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1일 7시간씩 주 35시간이 며, 임금은 시급 1만30원과 간식비 1일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 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 김혜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 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 로도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 리사업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 사업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10월 24 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고시/

/정재근 기자

전주시, 이동노동자 건강한 여름나기 응원

안전 장비 꾸러미 간식 나눔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혹서기를 앞 두고 이동노동자들을 찾아가 안전하 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전주시는 11일 완산구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전북근로자건강센터, 전주 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이동노동자 를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건강, 노 무 등)과 안전 캠페인, 간식 지원을 진 행했다.

이날 전주시는 여름철 건강 예방을 위한 혈압·혈당 체크 등 기본 검진을 실시하고, 팔토시와 얼굴스카프, 비옷 등 여름철 보호장구 착용을 통해 안전 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문화

가 장착되도록 인식 개선에 힘썼다.

또한 추진 중인 '전주 함께 장터 프로 젝트' 일환으로 지역 소상인 선결제를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음료 와 샌드위치 등 간식을 나누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배달노동자 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야외 노동 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 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여 름철 기상 조건에 취약한 이동노동자 의 안전과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

/정재근 기자

경제

전북도내 식품산업 협력 길 넓힌다

지역식품 7+1 협의회 개최 정책·혁신 아이디어 공유 기관 강점 살린 협업 이어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식품 연구기 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식품 연구 기관 7+1 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 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10일 순창 발효미생물산 업진흥원에서 열렸으며, 지난해 10월 1 구축, 시·군 연구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짝수월) 둘째 주 화요일에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실 무 협의체의 일환이다.

연구기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정읍 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남 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진안홍삼연구 소,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순창 발효미 생물산업진흥원, 고창식품산업연구소) 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총 8 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회의·행사 일정 등을 공유하며 동향과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 전북 식품산업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특히 농식품 분야의 특례 발굴 플랫폼 개정 필요성 등을 주제로 한 활발한 논 의가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7+1 협의회를 통해 기관 회의에는 도내 7개 시·군 출연 식품 별 강점을 살린 실질적 협업이 이뤄지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는 10일 도내 식품 연구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식품 연구기관 7+1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내 고향 살리는 특별한 기무 "고향사랑기부제" 전북농협이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와 같이합니다!

전북농협은 11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도 인식 확 산과 기부 동참 유도 및 쌀 소비촉진 확대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고향사랑기부・쌀 소비촉진 캠페인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서 농산물·식혜 나누며 홍보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본부장 연원섭)를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제도 인식 확산과 기부 동참 유 도 및 쌀 소비촉진 확대를 위한 캠 페인을 펼쳤다.

향4랑의 날' 행사로 이정환 전북농 협 총괄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 조위원장, 연원섭 한국전력 전북본 부장, 송성기 전력사업처지회 노조 위원장, 김상성 기획관리실지회 노 조위원장 및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

더불어 출근길 한전 임직원들에게 진 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렛과 관

내 농산물 및 식혜를 나눠주며 제도 및 쌀 소비촉진 홍보에 나섰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농협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은 매월 자체 '고향4랑의 날'을 지정 하여 특색있는 홍보와 더불어 쌀 소 비촉진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협력 하여 지속 추진중이다"며 "쌀 소비 진작과 더불어 열악한 농촌지역 지 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번 캠페인은 전북농협만의 '고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농협과 한국전력공사 전북 본부 양 기관은 지난 3월 영농철 및 수확기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희망봉사단' 업무협약을 체결 하여 농가 맞춤형 및 체계적인 일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

> >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17년 만 완화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개선 사업장 가입 확대 기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 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

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현장별 월 8일 이상 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 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됐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 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됐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 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는 경

설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 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 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 당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 도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를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 을 위한 1개월 판단기준이 어렵다고 제 기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운 판 단기준 개선으로 사업장의 업무 편의성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 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 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녹색제품 의무구매 실효성 높인다

14개시군 녹색구매 역량교육 지속발전·실천행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녹색제품 의무제 역량강화 교육 및 기초 간담회'를 개최 하고, 공공부문의 녹색구매 확산과 제도 이행 역량 제고를 11일 도청 중회의실 에서 진행했다.

함께 녹색구매 실적 향상 방안을 중점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온실 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친환경 제품이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동일 품목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녹색제품은 사용 단계에서 환경 영향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환경복원비용 등 리셋컴퍼니(주) 주관으로, 도 및 14개 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며, 에너지・ 군의 녹색제품 구매 담당 공무원들이 수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소 등 소비자

이번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녹색제 품 의무제도 소개 △구매방법 및 유의 '녹색제품'이란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사항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와 실적 관리법 △녹색구매 확대 전략 등 실무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도 차원의 탄소중 중심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자체별 구 모델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매 실적 공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위한 정책 피드백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교육과 간담회에 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용역 및 공사 계약서, 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 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와 관점에서도 경제적 이점이 커지고 있다. 매'문구를 명시하는 등 실행력을 높인

조달지침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업과 실적 점검을 병행해 녹색구매 확대와 제도 립 정책과 연계한 공공부문 선도 실천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 개선 방향 모색 등 현장 실효성 강화를 은 "녹색제품 구매는 환경보호를 넘어, 공공부문이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할 탄 소중립 과제"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녹 색조달 체계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사

/김영태 기자

국산 유채유, 식용유 시장 자립 '새 대안'

농진청, 국산 유채유 소비 독려 재배 확대 식용유 자급률 향상

기능성 물질이 풍부하고 풍미가 우수 한 국산 유채유가 외국산 중심의 국내 식용유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 한)은 식용유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의 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산 유채유 생 산 및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식용 유지류 연간 판매액이 3백 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판매액과 생산 규모가 (ha) 규모의 유채유 생산용 거점 재배 콩기름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를 조성하고, 우수 품종보급과 재 채종유 대부분은 화학적 추출 방식으로 착유하는 수입 카놀라유이며, 저온 압 착 추출 방식으로 생산되는 국산 유채 유 생산은 저조하다.

손실이 적고 풍미가 우수하다. 농촌진 흥청 분석 결과, 국내 품종을 이용해 저 온 압착한 국산 유채유에는 '식물성 스 헥타르에 달하며, 대부분은 경관용이 테롤'을 비롯해 '토코페롤', '카놀롤', '카 로티노이드' 같은 기능성 물질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연점이 높아 다양 추진할 계획이다. 한 요리에 쓸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유채유 생산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기존 육성 품종으로는 '중모7001(상품명 '황운')', '유려' 등이 있다. '유려'는 쓰러짐과 균 핵병에 강해 재배 안정성이 높다. 지난 해에는 '금별', '백운', '다강'을 개발해 품 종 출원했다. 이들 품종은 모두 에루스 산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아, 식용유 생산에 적합하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유채유 생산 확대 를 위해 전남 영암·해남·나주·진도, 전 북 익산, 제주 등 7개소에 총 430헥타르 배-수확-가공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또한 전남 해남·영암·진도 등 4개소에 유채유 착유 공장을 설립, 국산 유채유 대량생산 기반도 마련했 국산 유채유는 화학적 추출이 아닌 다. 생산 유채유는 학교 급식에 공급되 저온 압착 방식으로 생산돼 영양성분 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되 고 있다.

현재 국내 유채 재배면적은 약 5,000 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유채의 활용 가 치를 높이기 위해 씨앗을 수확해 기름 을 짜고 남은 유채박은 비료나 사료로 국산 저온 압착 유채유는 다른 압착 활용하는 '유채 자원순환 모델'을 적극

/김영태 기자

농진청,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 천적 선녀벌레집게벌 도입

방제 효과 현장 평가회 열어 감 재배 농가 현장 실증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2일 전 남 장성에 있는 감 재배 농가에서 돌발 해충 '미국선녀벌레'의 천적 '선녀벌레 집게벌' 활용 방제 효과를 소개하는 현 장 평가회를 연다.

현장 평가회에서 감 재배 농가는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협업 농장으로 선정돼 선녀벌레집게벌 방제 효과를 현장 실증 중이다.

이날 농업인과 관련 연구자 등 참석자 들은 미국선녀벌레와 천적인 선녀벌레 집게벌 활용 기술과 현장 실증 연구 결 과를 공유한 후 농가 의견을 들을 예정 이다.

감 농가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후 전 국적으로 확산해 감, 복숭아, 블루베리, 키위 등 300여 종 이상의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26개 시군 1만 1,134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유충과 성충이 집단으로 즙을 빨아 작 물을 약하게 만들며, 배설물인 감로를 분비해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협력으로 이탈리아에서 미국선녀벌레 고말했다.



의 천적 '선녀벌레집게벌' 600마리를 처 음 도입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로 대량증식에 성 공해 지난해 1만 4,264마리를 생산했다. 선녀벌레집게벌은 미국선녀벌레 어린 유충(1~2령)을 잡아먹거나 3~5령 유충 에 기생해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한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 지 5년간 전국 29개 지역에 대량 증식한 선녀벌레집게벌을 방사한 결과, 기생률 미국선녀벌레는 2005년 경남 김해 단 이 최대 30% 이상으로 나타나 미국선녀 벌레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

> 올해 말까지 미국선녀벌레 피해를 본 다. 전국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천적을 활 용한 미국선녀벌레 방제 현장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해충잡초방제과 정수경 과장은 "농업인에게 천적 정보를 제공 하고 천적 정착 여부와 현장 실증 결과 농촌진흥청은 2017년 국제농업기술 를 공유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 /김영태 기자

한전, 전기산업엑스포서 홍보관 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삼일동안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에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한다. <사진=한전>

비수도권 최대규모 전문 박람회 ESS 통합관리시스템 소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1 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부터 13일까지 삼일동안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전기 산업엑스포'에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한 로 소개할 계획이다. 공사의 주요 업무

올해 5회째를 맞는 전기산업엑스포는 해 이용자들이 직접 시연해 볼 수 있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전기설비·전력 산업 전문 박람회다.

올해 행사에는 발전·송배전·변전기자 재·원자력산업 등 관련 기업 110개 업 체가 참여해 4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KESCO'를 주제로 디지 털 전환에 따른 공사의 역할을 소개하 고, 미래 에너지 안전 전략 등을 집중 홍

이를 위해 공사는 에너지저장장치 (ESS)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 와 안전요령을 터치형 디스플레이를 통 도록 했다. 여기에 최근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고민을 덜기 위해 채용관련 Q&A도 진행한다.

실제 최근 입사한 직원이 행사장에 상 주하면서 구직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신협, 창립 59년 만 자산 10조 달성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 원을 최초 돌파했고, 2025년에 70개 신 연수)는 지난 5월말 기준 전북신협이 자산 10조 원을 달성해 기념식을 진행 했다고 11일 밝혔다.

으로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최태일 회장 의 축사로 시작됐다.

직원 일동, 각 지역평의회장 5명, 전북 상임이사협의회 오종근 회장, 전북상임 감사협의회 안종상 회장, 전북실무책임 자협의회 황민석 회장이 함께했다.

1966년 처음 태동한 이래 이리성심신 협이 출자금 6,303원, 가입금 2,400원 총 8,703원으로 인가된 것을 시작으로 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에는 114개 신협으로 자산 1조

협, 자산 10조 원, 조합원 51만 명 규모 로 성장했다.

창립 59년 만에 자산 10조를 달성한 이날 강연수 본부장의 기념사를 시작 전북신협은 관내 13개 시·군에 132개 영업점을 두고 있다. 2025년 5월말 자 산 10조 742억을 달성하며 전국 12개 행사에는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지역본부 중 자산 10조 원을 달성한 8 번째 지역본부가 됐다.

전북신협은 현재 6개 지역으로 완산 평의회가 자산 3조 9천7백억 원, 덕진・ 완주평의회가 자산 2조 1천 360억 원, 전북신협은 최초조합인 이리신협이 그리고 군산평의회(1조 2천억 원)와, 익 산평의회(1조 1,867억 원)가 자리하며, 동부평의회와 서부평의회가 각각 6천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감 3년 평가 교직원 80% "부정적"

전조교 등 6개 단체 설문 교원부정응답비율80% 행정직원부정응답비율60%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취임 3년 평가에서 도내 교직원 80% 이상이 부 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교육활동 보호마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 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등 6개 단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 달 6일까지 교원,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온라인(JB메신저)을 통해 이뤄졌으 며, 유·초·중등 교원 1140명, 지방공무 원 810명 총 1950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교원용 설문 9개 항목 (직무수행 만족도, 교육정책, 학교업무 경감, 학교교육력, 예산운용 적절성)과 게 나타났다. △행정직원용 설문 10개 항목(직무수행 만족도, 교육행정 정책, 교육행정 업무 답 비율은 대부분 5% 미만으로, 다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교육감 3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량, 예산집행 적절성, 계약 투명성, 인사 공정성, 부패·비리인식 등)으로 구분해

교원용 설문 분석 결과 '직무수행 만 족도', '교육정책', '학교교육력', '학교업 무경감', '예산운용 적절성', '민주성', '청 렴도' 등 7개 항목의 5점 척도 결과는 전 영역 2점 미만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하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높은 평가를 받았던 교육 활동 보호 항목은 1.91점으로 평가되며 교육정책 평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 치가 아니라, 교육 현장을 지키는 이들

행정직원용 설문 분석 결과는 '교육행 부정 응답 비율이 80% 이상, 긍정 응 에서 부정 응답 비율이 60% 이상, 긍정 응답 비율은 10% 미만으로 서 교육감

3년의 교육행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긍정적 인식은 매우 낮았

위법 소지가 있는 계약 투명성 항목의 5점 척도는 2.25점으로 나타났으며, 인 사 공정성은 2.31점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관 계자는 "계약 담당자는 절차에 의해 공 정하게 진행을 하는데 윗선에서 정해주 는 업체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인사 공정성은 학교보다 기관에 치우 친 인사가 있고, 서 교육감 취임 이후 보 은 인사가 많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번 설문은 전북교육청의 정 책과 행정이 교직원들로부터 전면적으 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직원을 배제한 정책은 실패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수 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성과 중심 일방 행 정 업무량', '민주적 교육행정문화' 등 2 정 중단 △현장 목소리 반영하는 구조 개 항목의 5점 척도는 2점 미만으로 부 로 정책 추진 방식 전면 전환 △정책 이 정적 인식이 매우 높았고, 대부분 항목 전에 교직원들과 신뢰 회복 등을 요구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중등 수석교사 수업나눔 콘서트

수업공개 맞춤형 코칭 등 수업혁신 위한 프로그램 다채

전라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 고자 7월까지 '2025 중등 수석교사 수업나눔 콘서트'를 운영한다고 11 일 밝혔다.

이 행사는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맛있는 수업 만들기'를 주제로, 교실 에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수업 아이 디어를 공유하고, 현장 교사들의 전 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총 770여 명의 교사가 수업 공개, 맞춤형 코칭, 워크숍 등 실천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수석교사가 직접 수업을 공개하 고, 후배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수업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수업 맛집 투어'는 수석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수업을 공개하고, 교사들과 함께 수업 사례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수업 레시피를 들고 수석교사가 간다'는 수석교사가 직접 학교로 찾 아가 수업 디자인을 코칭하는 1: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다.

'질문과 사고력이 살아나는 교실' 은 질문 수업 토크 콘서트로 마련 된다. 오는 18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이화여대 옥현진 교수와 청명고 한 기덕 교사, 수석교사 패널 등이 참여 해 수업 이야기를 나눈다.

마지막으로 내달 18일 개최되는 '함께 만들어가는 JB 수업 맛집'은 3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수 업혁신 워크숍이다. 개념기반 탐구 수업을 주제로 한 단원 설계 워크숍 등 분과별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예 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주정보진흥원,'한국형 영화효과음원' 녹음기술 실무인재 양성

수집부터 편집·마스터링까지 전 과정 실무형 교육 무료 제공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케이 사운드 라이브러리) 효과음원 제작기술 을 위한 녹음기술 실무 교육과정을 운 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Work-On 녹음기술 실무 교육'은 효과음원 제

작 규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형 효과음원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의 실무형 기술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

위한 △기본 이해 교육 △효과음원 수 집 및 녹음 △편집 워크플로우 △믹싱 △메타데이터 정리 △마스터링 등 실제 현업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의 커리큘 럼으로 구성되며, 현장 실습을 통해 교 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육생의 실전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은 오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현장 실습 7월 4일~5일) 약 2주간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며, 영 주요 교육 내용은 효과 음원 제작을 화·영상 제작 관계자와 음향 관련 재학 생 및 졸업생, 관련 분야 취업준비생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흥원 누리집(www.jica.or.kr)에서 신청 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집· 제작된 효과음원은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플랫폼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www.k-soundlibrary.kr)'에 등록돼 실 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서 비스되며, 참여 교육생은 전 과정에 실 무자로 참여함으로써 직접 효과음원 제 교육 참여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진 작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정재근 기자



전북대병원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안심학교 현판배부

도내 초·중·고 103개교에 전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전북 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센터장 김소리)는 아토피·천식 안심학 교 인증 현판을 전북 도내 103개 안심학 교에 배부했다.

보센터는 질병관리청의 '아토피·천식 안 건강한 생활과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예 전개한다. 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어린 전달했다.

또 안심 학교를 대상으로 현판 인증 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벤트를 진행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안심학교 운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확대를 유 도하기 위한 교류의 창구도 마련됐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 아 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서는 △알레 전북대병원 전북 아토피·천식 교육정 르기질환 학생 선별 및 관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학 심학교 공동현판 제작 및 배포 계획'에 생, 교사,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교내 알 따라 알레르기질환으로부터 학생들의 레르기질환 응급체계마련 등의 활동을

또 유아 및 어린이 시기부터 알레르기 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03개교 질환에 대한 올바른 예방관리법과 정보 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인증 현판을 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알레르기질환 예방의

/김영태기자

전북대 조재혁 교수팀, '감염병 대응 AI 시스템' 개발

전북대학교 조재혁 교수 연구팀이 국 니터링을 넘어, 감염병 특화 언어모델 내 최초로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소형 (sLLM)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다기관 언어모델(sLLM) 및 예측·데이터 통합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연계해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범부처가 추진하는 방역연계 감염병 연 합한 'AI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현 구개발재단(GFID)의 '의료현장 감염 대 하는 데 있다. 응역량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이 이 사업을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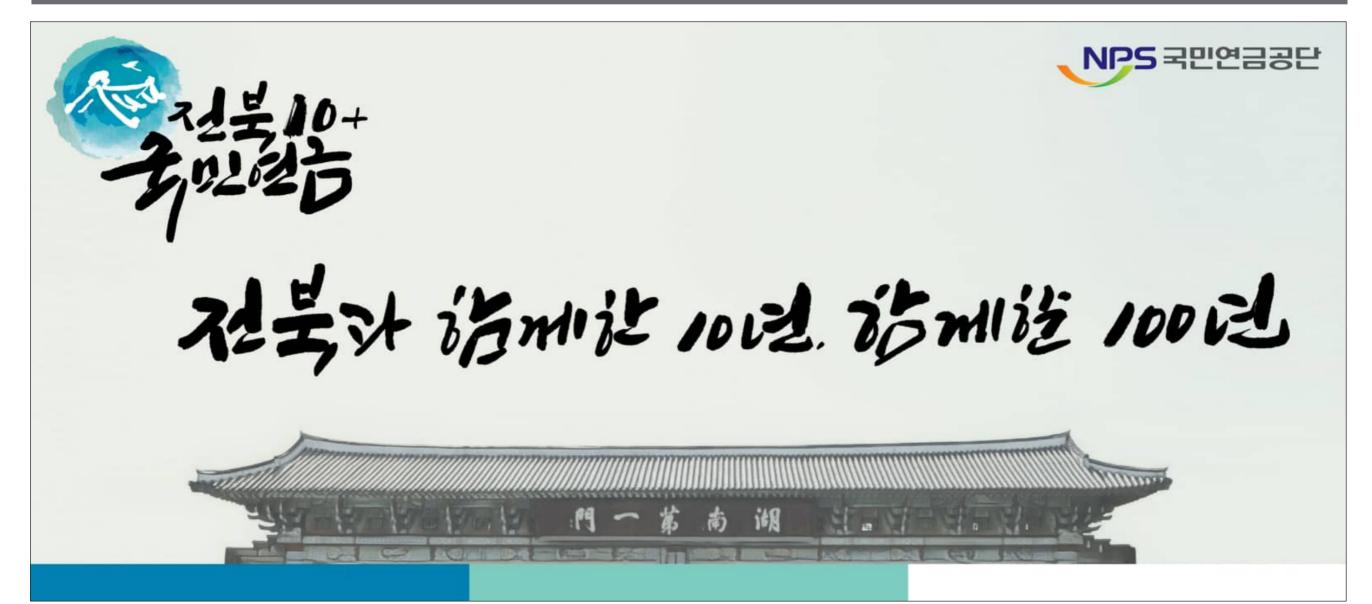
이번 연구의 핵심은 단순한 병상 모

실시간으로 감염병의 중증도 예측, 확산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세 분석, 의료진 지침 리포팅까지 통

연구진은 EMR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 총괄책임자인 조재혁 교수는 감염병 다기관 연계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AI 대응과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을 목표로 예측 시스템의 실제 적용성과 확장 가 능성을 병원 현장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희망2025 나눔캠페인' 익산시, 우수지자체 수상

익산시가 지역사회의 따뜻한 기부 참여 를 이끌어 내며 나눔문화 확산 공로를 인 정받았다.

익산시는 11일 전주시 치명자산성지 평 화의전당에서 열린 '희망2025 나눔캠페인'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 됐다.

이번 시상식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 주관했으며, 캠페인 기간 나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지자체·공무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익산시는 수상의 영예와 함께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비는 위기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 등 복 지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환경 개선 공사

익산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열올림픽스포 츠센터 수영장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수영장 천장 보수, 탈의실 내 노후 캐비닛 교체, 주차장 재정비 등 이 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천장보수는 구조물의 정밀 안전 진단을 바탕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실 내 안전성을 향상했다.

남녀 탈의실 캐비닛 역시 모두 신형으로 교체됐다. 1·2층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노 후 캐비닛을 위생적이고 내구성 높은 재질 로 교체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탈의 환경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2.3m였던 주차 공간 폭을 2.5m로 확장하는 주차장 정비를 통해 차량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접근 성을 개선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K-관광섬 방축도 '내 마음의 방파제' 주민 사진전

군산시는 고군산 K-관광섬 주민역량 강 화사업의 하나로 방축도 주민 사진전 '내 마음의 방파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군산 K-관광섬 용역사인 모라비안앤코와 함께 기획한 행사로 방축 도 주민들이 직접 필름 카메라를 들고 섬 곳곳을 담아낸 주민참여형 사진 아카이빙 전시이다.

전시에는 주민들의 애정 어린 시선이 깃 든 마을의 일상과 풍경, 사람들을 담은 총 50여 점의 사진이 소개되며,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섬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삶의 이 야기를 엿볼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인정

전북도표창수상 임산물 활용 원예활동

정읍시가 '뇌건강 깨우는 자연의 산 물'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관리 우수기 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11일 전주 그랜스힐스턴호텔에 서 열린 '2025년 광역-치매안심센터 발전 워크숍'에서 2024년 치매관리사 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 별자치도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14개 치매안심센 터가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 하고, 향후 치매관리사업의 방향을 모 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읍시는 지역 특산 임 산물을 활용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뇌 건강 깨우는 자연의 산물'을 사례로 제 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램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참여자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다"고 밝혔다. 들의 흥미와 인지기능을 동시에 자극 하겠다"고 전했다.



정읍시는 11일 '2025년 광역-치매안심센터 발전 워크숍'에서 2024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하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한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 과를 인정받았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관리 프로그램이 성과를 '뇌건강 깨우는 자연의 산물' 프로그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정읍시 의 치매관리 서비스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 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치 매안심센터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백정기 의사 순국 91주기 기념 좌담회

19일백정기의사기념관

윤봉길, 이봉창과 함께 대한민국 3의사로 불리는 백정기 의사의 삶 과 정신을 조명하는 좌담회가 정읍 에서 마련된다.

정읍시는 구파 백정기 의사의 순 국 91주기를 맞아 오는 19일 오후 4시, 영원면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 서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를 연다.

이번 좌담회는 백정기 의사 기념 사업회 이홍로 사무국장의 선양사 업 추진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얼 학회 이도형 회장이 선양사업의 향 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담회는 아흐K로컬콘텐츠연구소 백남이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도 함께 이어 진다.

시는 좌담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기관과 단체에 전달하



고,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백정기 의사의 정신 을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는 계획이다.

좌담회 관계자는 "정읍시와 기념 사업회가 꾸준히 기리고 있음에도 백정기 의사의 이름은 윤봉길, 이 봉창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아쉬움이 컸다"며 "이번 좌 담회를 통해 백정기 의사의 위대한 항일 활동이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소상공인온라인홍보숏폼제작지원

현장 맞춤형 영상 콘텐츠 소상공인 브랜드력 높여

군산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 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배달앱 '배달 의명수'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 '숏폼 제작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콘텐츠(숏폼)를 통해 소상공인의 브랜 있도록 지원한다.

군산시청 동호회인 '라이또 필름'이 채널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중심이 되어 기획・촬영・편집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신청 접수는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 까지 진행됐으며, 총 25개 관내 업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높은 관심을 나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 타냈다.

9곳, 기존 가입 업소는 10곳이며 아직 한 민관 협력형 사업을 지속발굴해 나 미가맹된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가맹 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안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촬영과 드 및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영상 제작이 진행되며, 완성된 영상은 온라인 SNS 계정과 '배달의명수' 홍보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

번 지원사업은 단순히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 스스로 콘텐츠를 활용해 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이 중 '배달의명수' 신규 가입 업소는 도 공공의 역량과 시민의 참여를 결합

> 한편,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 상공인의 디지털 마케팅 접근성을 높 이고, 지역 내 공공배달 앱인 '배달의명 수'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자생적인 상 권 활성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의회, 청렴·투명한 의회상 잰걸음

10일 의회운영위 개최 불합리한 규정 일괄 정비

불합리한 규정들을 일괄 정비함으로 써 시의회 운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 해 팔을 걷어붙였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 다. 회는 지난 10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익 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익산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익산 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익산 시의회 회의 규칙, 익산시의회 포상 규 칙 등 5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을 원 속에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안 가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한 공적 심

사를 위한 외부 위원 위촉 △의원연구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 위 촉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 익산시의회가 자치법규에 내재해 온 정 신설 △여비 부당 수령시 환수금액 강제징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제시 규정 신설 등이

> 김경진 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익산시의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획 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 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 더욱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전면 시행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월 1만원 소비 쿠폰 지급

정읍시가 위메프오를 통해 공공배달 앱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 며 외식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당월 1회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며, 쿠 의 배달비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정읍 넣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 능하다. 해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 비 진작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위메프오는 중개수수료가 약 2%로 민간배달앱의 2~9.7%에 비해 훨씬 낮 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소비쿠폰 정 책의 중심 채널로 활용된다.

지원 방식은 간단하다. 일반음식점, 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위메프오 로 2만원 이상 주문을 세 차례 완료한 소비자는 다음 달 10일쯤 1만원 상당의 폰은 다시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

는 정책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소 역도 소급 적용되며, 매월 최대 3회까 지의 결제 실적만 인정된다.

달로 이월돼 누적 실적으로 인정되지 만, 3회를 초과한 주문은 이월되지 않 수익을 돌려주는 친소상공인 플랫폼으 는다. 기준 금액은 메뉴와 배달 대행료 를 포함한 총액이며, 앱 내 할인쿠폰이 나 포인트는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한

시는 소비쿠폰 지원과 함께 자체 소 비촉진 이벤트도 병행한다. 구체적으 로는 일반 가맹점에는 하루 1회 최대 소비쿠폰을 자동으로 발급받는다. 1인 2000원, 전통시장관에는 최대 4000원 사랑상품권 결제 시 구매금액의 5%를 페이백 포인트로 적립한다. 또 전체 결 이번 사업은 6월 1일부터의 이용 내 제금액의 1%를 페이백 포인트로 돌려 주는 혜택도 마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이 중 실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에게는 실질적 할인 혜택을, 소상공인 에게는 수익 증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 롯데몰 연계 팝업부스

지역 창업기업 판로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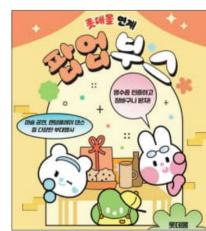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 센터)가 '롯데몰 연계 팝업부스'를 오 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롯데몰 군산점 1층 비단뜰에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됐 다.

올해는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12 개 사)와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3개 사)에서 선발한 총 15개 창업기 업이 참여한다.

특히, 군산의 특산물인 건새우, 냉동 새우살 등 수산물, 보리·쌀을 이용한 의적인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끌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



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팝업부스 행사 외에도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장바구니 증 수제 맥주와 블렌딩 차, 재활용(리사 정 이벤트, \triangle 풍선 아트 \triangle 마술 공연 이클링) 의류 등 청년 창업가들의 창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해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이 즐거운 쇼핑 시는 이번 기회로 방문객의 관심을 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육군부사관학교, 주민 복지 증진 '맞손'

문화 체육시설 개방 협약 학교 내 도서관체육관 등

익산시가 육군부사관학교와 손잡고 지역 복지 증진에 나섰다.

익산시는 11일 여산면에 위치한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문화·체육시설 개방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사관학교가 보유한 시 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문화시설 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민·관·군의 상생 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개방 대상 시설은 학록도서관, 계백 관(체육관), 국립전사박물관, 계백공원 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이다. 익산시와 부사관학교는 협약 이후 세부 행정절 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 인 시설 개방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은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은 간단 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작성하면, 위 병소 옆 별도 출입구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경중 학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대가 지역사회에 보다 열린 모습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 며 "익산시와 상생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복지사각 해소 위해 전수조사 돌입

1552세대…조기 발굴

1552세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를 지원해 소통과 통합의 기반을 마련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다.

조사 대상은 2024년부터 올해 4월까 기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중지된 1213세대와 고독사 위험군 339세대 다.

시는 이들 세대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유무 등을 재검토해 기초생활 보장제도 사회보장급여 재신청 여부 를 확인하고, 복지지원 필요 여부를 종 합적으로 살핀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세대에는 기 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포함한 전

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공공자원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 정읍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회, 푸드뱅크 등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모든 조사대상 가구에는 시 가 자체 제작한 '희망나눔 통통꾸러미' 하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연계로 위

>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세대는 정신 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개별 상황에 맞 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 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 누구도 복지에 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안전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타임스

고창군,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선정

사시사철 김치특화지구 사업비 50억 도비 확보 일자리 창출 등 기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산업지구로 최종 선정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 되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사시사 수성 규명 연구 등이 이뤄진다. 철 김치특화지구 사업'이 전북특별자 치도로부터 최종 농생명산업지구로 지 정됐다.

화 조성계획에 대한 기반조성 현황 등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통해 지구조성 비 50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 ha)'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발효 및 식 품산업육성지원센터, (재)고창식품산 업연구원 등 3개의 핵심 거점을 연계한 다. 이를통해 고창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김치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산업 육성, 김치 원료의 유통 허브 등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확보된 조성사업비로는 △기업육성을 위한 김치 원료산업 기 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지구'가 반조성 Δ 김치가공업체 육성 Δ 김치소 재 산업 조성 △고창군 김치 산업 경쟁 력 강화를 위한 배추수확 농기계 자동 화 성능개선사업 △김치 부산물의 우

이에 더해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은 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의 성공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김치소 특히 지정된 농생명산업지구 간 차별 재 개발, 원료 우수성 연구, 농가 조직 화 및 산업화에 앞장선다.

>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특별법 제정 에 따라 마련한 개념으로 농생명자원 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을 집적화 해 산업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고, 전북 농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생산·가공·유



통·문화·체험 등 모든 기반 산업을 아 우르는 김치산업을 육성 하겠다"며 "원 물 생산 위주의 지역 농업환경을 가공 산업으로 전환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희망 나눔캠페인 우수시 선정

복지·삶의질향상기여 3년 연속 우수지자체 뽑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1일, '희망 2025 나눔캠페인'에서 우수시로 선정 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 사패와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 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희망2025나눔캠페인기간 (2024.1~2025.1) 동안 지역민들의 복 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웃사 랑 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과 행복 공동체를 열어가는 데 기 여한 공이 큰 지자체에게 전달하는 상 으로 김제는,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 된 것은 도내에서도 드문 사례로, 지 역의 기부참여율 향상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대한 모범적 실천으로 그 의미 가 크며, 시가 지향하는 '따뜻한 목지 히 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 감사패는 어 서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



김제시는 11일,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서 우수시로 선정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로부터 감사패와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제시>

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다"고 말했다.

지대 없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공동체 실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복지 마음을 모아 받은 것이기에 의미가 깊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취약계층 긴 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되 이어 "앞으로도 김제시는 복지사각 고 있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1,500만원의 인센티브는 고독사 예방 을 위한 중·장년 1인 가구 프로그램 사

/김제=온봉기 기자

比 바기오시 과학고 대표단, 부안군의회 방문

고창 국가유산 야행 13~14일 열린다

5년만개최이간형체험풍성

'2025년 고창 국가유산 야행'이

13~14일 고창군 고창읍성과 신재

효고택, 오거리당산 일원에서 열린

고창에서 5년 만에 개최되는 이

번 야행은 '달빛 동행, 모양성 구경

가세, 별빛 야행'을 주제로 다양한

야간형 문화콘텐츠와 체험, 공연 등

을 통해 고창의 국가유산을 다채롭

고창 국가유산 야행은 8夜를 테

마로 꾸며져 있으며, '아설(夜說)'은

개막을 알리는 '묵화, 6월 밤을 그

리다'를 시작으로, 고창오거리당

산제를 재현한 퍼레이드 '길굿'과

'당산줄감기', 지역 청소년들이 연

주하는 '달맞이 오케스트라'국악

풍 연주, 전통 줄타기 '은하수를 건

는 예인' 등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

'야로(夜路)'는 고창의 이야기를 배우들이 직접 들려주는 '모양성

이야기꾼' 프로그램과, 쓰레기를

줍는 환경 투어 '모양성 플로깅',

미니게임 '봇짐장수를 이겨라!', 그

리고 해설사와 함께 고창읍성 내

부 둘레길을 돌며 고창의 시간을

배우는 '다같이 돌자 읍성 내 한바

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는 무대를 연출한다.

게 체감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10일 필리핀 바기오시 과학고 스카우 트연맹 소속 청소년과 지도자 등 대 표단 25명이 부안군의회를 방문한 것

을 환영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제25회 세계스 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시작된 국제 청소년 문화교류의 연장선으로,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날 대표단은 부안군의회 본회의 장을 견학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 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하는 시

간을 가졌다.

다"고 밝혔다.

박병래 의장은 "이런 방문을 기회로 국제 청소년들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고, 앞으로는 부안군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 램으로 확장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세대의 주 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

'야경(夜景)'에서는 판소리박물

관 앞 잔디밭에 LED장미와 달·토

끼로 꾸민 광장, 소원등을 직접 달

수 있는 체험 등 다양한 빛의 콘텐

츠가 준비돼 있다. 이 외 다양한 국

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이 고창의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고창

국가유산 야행은 지역 주민과 관

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야간축제

로 고창의 국가유산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밤이 될 것이 다"며, "국가유산을 단순히 보존하

는 데 그치지 않고, 낮보다 더 빛나

는 국가유산의 밤을 통해 고창을

기억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

/고창=백종규 기자

찬란한 밤을 채울 예정이다.

한편, 대표단은 신재생에너지테마 관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부 지를 탐방한 후 출국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우분고체연료 기반 수소산업 육성

수소산업 육성 연구용역 착수

청 상황실에서 '김제시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 다. 최했다고 밝혔다.

롯해 유관 부서장, 수소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기업환경연구원 관 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과업 수행 계 획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공유, 그 리고 과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소 정책 전환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 로드맵 수립 △ '수소 생산 - 유통 - 활용' 전(全) 주기

특화 아이템 발굴 △수소도시 조성사 업 및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국가사업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9일 시 과의 연계 방안 마련 등 수소산업 육성 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

특히 시가 추진 중인 우분 고체연료 이날 보고회는 김희옥 부시장을 비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지역 축산자원 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의 모범시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하루 약 600톤에 달하는 우분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체연료화 시 설을 구축하고, 이를 수소 생산에 활용 하는 청정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본 격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축산환경을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저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김제형 친환경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기 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선운미디어갤러리, 방문객 5천명 코 앞

치유문화 거점 랜드마크 개관 2개월4천8백명 돌파

고창 선운미디어갤러리가 지난 4월 지며 새로운 지역 명소로 떠오르고 있

선운미디어갤러리는 개관 후 약 2 개월만에 총 48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 찾는 명소로, 선운미디어갤러리는 다녀갔으며, 선운사를 찾는 관광객들 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 사진전시관을 리 모델링해 고창의 7가지 보물과 치유 와 전시가 어우러진 치유문화 거점공 간으로,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외관에는 고창 홍보영상을 활용한 비디오 아트가 상영되고, 문수사와 맹 에 개관 이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 종죽림을 형상화한 벽화가 설치돼 관 의 랜드마크로 거듭난 것 같아 매우 광객들이 안팎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 기쁘다"고 말했다. 는 포토존을 설치했다.

진입로에 위치해 '노란 지붕'으로 관 광객들의 이목을 끌어 랜드마크로 큰 고창 선운미디어갤러리는 기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플루언서를 섭외해 촬영하는 등 더 많 제외하고 운영된다. 지원을 주제로 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각종 체험행사, 이벤트 등 적극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 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운미디어갤

러리가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가 고창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홍보와 행 선운사는 고창의 가장 많은 관광객 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 공하고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운미디어갤러리는 입장료가 무료 로 누구나 방문해 관람할 수 있으며, 특히, 고창문화도시센터는 유명 인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은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어업법인 190개소 적법 운영 유도

16일~8월 말까지 실태조사 설립요건 유지 등 중점 실시

부안군은 어업법인의 부실 운영·관리 를 예방하고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 해 오는 16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관내 어업법인으로 등록된 19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 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조 사로 지자체는 매년 실시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 회사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어업법인으 로 설립요건 유지와 사업운영 여부, 부 동산업 등 금지업종 영위 등을 중점 조 사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결과 부적정 사항이 있는 경 말했다. 우 그 내용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업을 미운영하는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 는 관할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어업법인 육성과 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안=신상수 기자

'제52회 고창모양성제' 대행사 선정

고창군은 '제52회 고창모양성제(10 월 29일~11월 2일)'성공 개최를 위해 축제 운영 대행사를 선정했다.

이번 대행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지 를 준비할 예정이다. 난 10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업 체를 선정했다. 축제의 기획부터 운 영, 홍보,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 에서 고창군과 함께 축제를 이끌게 된다. 평가 요소는 △행사 기획력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재난안전 대책 및 교통관리 대책 등으로 지원 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세심한 평가와 논의가 이뤄졌다.

고창군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 상을 통해 6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착수보고회를 거쳐 본격적인 축제

특히 올해는 고창읍성 일대를 중심 으로 행사장 범위를 확대해, 전 세대 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 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축제의 정 체성과 품격을 더욱 확립하는 중요 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행사와 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내 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읍지사협, 착한가게 78호점 부안대동공업사선정·현판전달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 장 한동일)는 지난 11일, 부안대동공업사를 '착한가게' 78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 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후원과 나눔을 실천하는 업 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부안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하고 있는 나눔 실천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요자 부안대동공업사 대표는 "작은 정 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 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한편 부안대동공업사는 농기계를 수리하 고 판매하는 업체로 그동안 지역의 어려운 농민들의 사소한 수리는 무료로 수리해 주 어 많은 이들로 해금 칭송이 자자한 업체로 명성을 얻고 있다.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정 위원장 은 "나눔 실천에 동참해 주신 부안대동공업 사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 한 변화가 이어지도록 협의체도 더욱 힘쓰 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업무 협약

부안군은 지난 10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 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군과 부안경찰서 부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안청년정책 협의체,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종합 복지관, 부안실버복지관, 부안군정신건강 복지센터, 부안군사회복지협의회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군은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위험 성이 높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유관기관

들이 협력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앞으로 정기적

인 네트워크 회의와 사례관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협 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하나로 연결돼 고독사를 예 방하고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새만금신항 개항 대비 김제시 신항만발전委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6년 하반기 새만 금신항의 개항을 앞두고 '김제시 신항만발 전위원회'를 개최해 새만금신항 개항준비 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정성주 김제 시장을 비롯한 항만분야 해운·물류산업 전 문가들로 구성된 신항만발전위원회 위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새만금신 항 2선석 개항에 대비하고 변화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 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문성 김제시 신항만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엘유프로 안정동 전무, 공현동 한경 파트너스 대표, 양현석 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등 민간 전문가들과 지역 대학교수들이 참 석해 해양수산부 제131회 중앙항만정책심 의회를 통해 결정을 통해 새만금신항이 국 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사항을 공유하고 26년 하반기 예정된 새만금신항 2선석 개 항에 대비해 항만 조기활성화와 항만경쟁 력 확보 방안, 미래 신산업 발전방향, 김제 시 연계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앞으로도 새만금 신항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 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신 항과 연계한 새만금과 김제시 미래산업 발 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 미래형 스마트농업 전진기지 도약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 938억 투입, 6대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남원시 대산면 일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농생명산업지구로 지 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는 총 60.4ha 부지에 5년간(2025~2029년) 938억 원을 투입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 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스마트 팜 혁신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 트 원예단지, 스마트 교육·실증단지 등 6대 핵심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 며, 스마트농업 농가의 소득 30% 향상 다. 획이다.

본 지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원예산 업 기반과 전국 최대 통합마케팅 조직 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력해 생산-유통-가공-교육의 전주기 스마 하고, 스마트APC 및 실증단지 등을 통 트농업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 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정착을 지원 로 기대된다.



남원시 ECO스마트팜 산업지구가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전주기 스마 트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착을 지원한다.

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 을 기대하고 있다.

픽투자운용 등 민간 파트너와 협력해 대규모 창업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히 청년 창업농 50농가 유치, 관련 기 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업 15개사 유치를 목표로 스마트농업 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주민 소득 증대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

한편, 남원시를 포함한 이번 3개 지 남원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퍼시 구(남원, 진안, 고창)는 총 2,155억 원이 투입되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의 첫 사례로, 향후 농업의 첨단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귀농 농업창업·정착 자금 지원 확대

귀농창업·주택자금 신청 접수 최대 3억 대출지원 심사 선정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귀농인 해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억원 한도 이내로 경종 및 축산 분 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축 등을 대출금리 연 2.0%(5년 거 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 을 수 있다.

만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출생자)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 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업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 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 해 자격 요건이 완화됐으며 자세 한 내용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 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 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 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 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하 인별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 며,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 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 만원 한도 이내로 주택구입 및 신 급 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 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 신청조건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은 10일 상반기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순창군>

순창군, 미생물 기반 식품산업 육성 시동

도기능성식품자유특구지정 GMP 공유공장 실증 본격화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발 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중소벤처기업 부로부터'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향후 3년간 미생 된다. 물 기반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공 유공장 운영 실증 연구개발 사업이 본 오농장, △바이오닷 등 3개 기업과 협 격 추진될 예정이다.

기능성 식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와 공 정을 다수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군 겠다"고 말했다.

공유모델을 실증하는 것으로, 규제자 유특구 제도를 통해 기존보다 간소화 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 절차가 적용

이를 통해 건강기능성 소재의 실용화 가능성부터 기준 규격 설정, 제품화까 지 기능성 식품 개발의 전 과정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탄탄해질 전망이다.

특히, 순창군은 특구 내 지식산업화 센터에 입주한 △한풍제약, △성마리 력해,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의 전문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실증사업'은 설비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및 홍 국소재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증을 추 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

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 식품 벤처기업들이 높은 초기 투자비 없이도 건강기능식 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국내 기능성 식품 산업의 기반이 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특구 지정 으로 순창군이 미생물 식품 산업을 기 반 100년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토 대를 구축하게 됐다"며 "미생물 기반 건강기능성 원료 시장을 선점하고 관 련 산업 생태계를 순창에 조성해 고부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빈집 활용 '복지안전주택' 운영

빈집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 올해 시내권 1곳 시범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재난과 주거 이다.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빈 시는 올해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 해 리모델링을 통해 호실 공간을 최대 집을 활용한 남원형 임시 주거 지원사 한 후 권역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1호 업인 '복지안전주택' 추진에 나섰다.

시로 지인의 집이나 마을회관에서 불 편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을 고려해 권역별 대상지를 확대해나

에 따라 시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서 갈 예정이다. 리모델링한 후 재난 피해자나 주거 위 기가구가 단기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생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 대상자와 주거 취약계층과의 연계를

복지 안전 주택'은 시내권 빈집으로 매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 화재 및 입을 완료했고 리모델링을 추진해 운 을 위해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운영 자연 재난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고 임 영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 진입과 주차 조례』를 제정해 '복지안전주택'을 효 공간 확보, 생활 편의시설 여부 등 여건 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임시 주거시설의 공실 발 강화하고,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또한,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35억 체납액 적극 대응 나선다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강력 징수·새농촌기금 회수 등

순창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 실에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염기남 순창부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세외수입과 새농촌 육성기금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 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 해 체납 현황과 징수 실적,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 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순창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진행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15

억 원에 이르며, 특히 올해 들어 구상 금과 재산사용료 체납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새농촌육성 기금 미상환액도 20억 원을 넘어 신 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체납징수율을 높이 기 위해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 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할 예 정이다. 또한 새농촌육성기금 미상환 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의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이주갑의원 대표 발의 채택 "효 정신 국가차원 장려해야"

현재 어버이날은 1973년 법정기념 일로 지정돼 있으나 어린이날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많은 국민이 부 효사상 국가 장려 정책 강화 △어버 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78%가 어버이 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 정비를 통한 휴일 형평성 문제 해소

하고, 핵가족화·개인주의 확산으로 약화된 가족 간 정서적 유대를 회복 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절차 조속 추 등을 요구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 의회,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식 송부해 이번 건의안은 우리 사회의 근본 가 입법 추진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왼주군의회 이주갑 의 원이 11일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을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법무부, 보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 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전북도 및 도 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치인 '효'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효행

순창군,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3개 기업 선정 운영 전반 지원

순창군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 최대 100만 원(보조금 90%, 자부담 기 위해 '2025년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30 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등 기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

회적경제기업으로 새롭게 진입하고 자 하는 예비 기업이다.

총 3개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당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경영 진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회적 단, 홍보 및 마케팅, 세무·노무 자문, 공공조달 참여 전략 등이 포함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농업도 안전이 먼저" 온열질환 예방 활동 총력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계획'을 수 립한 완주군이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 키기 위해 선제적인 교육·홍보·캠페인 등 사전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달 초부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응급조치 방법 등을 교육·홍보하고 있다.

6월 첫 주에는 7개 마을을 돌며 9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진행했으 며, 리플릿을 활용한 이론과 안전보조구 보 급을 통한 실천 독려를 병행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여름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 직사광선이 없는 그늘에서 휴식 하기, 낮 시간대(12시~17시) 농작업 중단 등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직접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적 극적인 농촌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 등 추진으로 안전한 농촌일터를 조성 중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보건소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남원시보건소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을 시행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 기 발견이 어려운 질병이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면 인유두종바이러스(HPV)으로 유 발되는 자궁경부암, 항문생식기암 등의 주 요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어 암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 12~17세(2007~2013년생) 여성 청소년 및 △18~26세(1998~2006년생) 저소득층 여성 이다. 접종 백신은 HPV4가 백신으로 첫 접 종 나이에 따라 접종 횟수가 달라진다. 15 세 이전 첫 접종 시 총 2회 접종, 15세 이후 첫 접종 시 총 3회 접종을 받게 된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완주LH삼봉사회복지관 수강생 수채 캘리 엽서로 희망 전해

완주군 삼봉지구 단지 내에 있는 LH삼봉 사회복지관 수강생들이 재능기부에 나섰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LH삼봉사회복지 관 2025년 상반기 프로그램 중 수채 캘리그 라피 수업을 수료한 수강생 20명이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홀몸 가정을 찾아 용기 와 희망을 주는 문구와 그림이 담긴 엽서를 전달한다.

수채 캘리그라피는 수성펜과 붓펜을 이 용한 수업으로 완주군 지역주민의 정서 함 양과 자신감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LH삼봉사회복지관은 2021년 임시개관을 시작으로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완주군 청으로부터 위탁받아 2022년부터 본격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업 판촉 프로모션 지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남원시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 전 라북도 주관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 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

남원시는 관내 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 화를 위해 판촉프로모션 활동을 희망하는 22개 내외 기업을 선발해 온오프라인 프로 모션 다채널 연계 또는 박람회 참여를 지원 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고령친화도시·관광·승강장 관리 제언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이 11일 제 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 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 기반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서 의원은 "완주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의 25%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 입했다"며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스마트 홈 기술 확대 보급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어르신들의 안전하 략을 제안했다.

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완주 을 제시했다. 군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구축을 강력 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승강장 전수조 전환이 절실하다"며 완주군 관광정책



고 있다.

사를 통한 시설 실태 파악, 정기적인 청 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4대 전 결관리와 방역 등 일상 유지 관리 강화, 승강장 다기능 공간화, 전담부서의 사 원과 자체 관광 브랜드도 갖추고 있으 또 이순덕 의원은 "버스승강장의 지 후관리 책임 강화 등 구체적 정책 대안 나 체류시간과 숙박률은 감소하고 있

유 이수 의원은 "체류형 관광지로의

유 의원은 "완주군은 풍부한 관광자 어 관광 효과가 지역경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농업·문화 브랜딩 창업지원사업 장수군, 16일까지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청년 창 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문화 브랜딩 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에 맞춰 장수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장수군과 전주 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구 성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집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예비 창 업자 총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에 게는 창업 교육과 멘토링이 제공되며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6명에게는 1 인당 최대 900만 원의 창업 사업비와 맞춤 형 멘토링이 지원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는 장수 군청 또는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 홈 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필요 서 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자동차세 7,217건 6억8백만원 부과 홍보반 편성

임실군이 2025년 6월 1일 기준 관내에 등 록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7,217건(6억 8백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 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 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 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 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 은 제외된다.

과세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건설 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이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차세대지방세 수납 시스템 ARS(142211)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 로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며, 자농이체 신청자는 자농 인줄되므로 통 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 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 수 처리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 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 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 인형극 성료

진안군보건소는 지난 6월 9일부터 10일 까지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건강 홍보 행 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6월 9일에는 진안시장 일원에서 지역 주 민 350여 명을 대상으로 80년 함께한 구강 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라는 구호를 내 걸고 구강건강 캠페인이 펼쳐졌다. 이번 캠 페인은 직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1:1 퀴 즈 이벤트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 을 두었다.

이어 6월 10일에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 이집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 인형극 공연이 진행됐다.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인형극은 구 강관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참여한 교사들과 보호자들로부터 유아기 구강건강 교육에 효과적이었다는 반응을 얻었다.

문민수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과 인형 극을 통해 주민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 다"라며"앞으로도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SNS 콘텐츠 30만뷰 돌파

작약・꽃양귀비 콘텐츠 실제 방문 후기 등 호응 전년 대비 관광객 급증

<관련기사 12면>

임실군이 SNS를 통해 선보인 봄꽃 콘텐츠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실 제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한 달간 옥정호 작약꽃과 꽃양귀비, 임실치즈 테마파크 장미원을 중심으로 사진 게 시글 6건과 숏폼 영상 4건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등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해 누적 조회수 31만 6천 회를 기록했다.

특히,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의 작 약꽃밭과 꽃양귀비를 배경으로 제작된 숏폼 영상은 약 30~45초 분량의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11만 6천 회, 좋아요 855개를 기록하며 강한 파 급력을 입증했다.

해당 영상은 임실군 소속 신규 공무 원이 직접 출연하고 기획·촬영·편집까 지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젊은 감각과 트렌디한 연출이 감성적인 영상미와 어우러져 SNS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



임실군이 SNS를 통해 선보인 봄꽃 콘텐츠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실제 관광객 유 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임실군>

었다.

말에 남편과 다녀왔는데 작약 향이 너무 좋았어요. 연애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 살짝 설레기도 했어요"와 같은 실제 방 문 후기와 함께 방문 의사 표현도 줄을 이었다.

이러한 SNS 홍보 효과는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다. 홍보가 집중된 5월 한 달간 옥정호 붕어섬 방문객은 11만 555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79,260명) 대비 약 39% 증가했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여름철 주 댓글 반응 역시 뜨거웠다. "저번 주 주 요 관광지인 왕의 숲 성수산, 아쿠아페 스티벌 등 계절별 명소를 주제로 한 SNS 콘텐츠 제작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심 민 군수는 "SNS 콘텐츠 하나가 임실 관광에 대한 관심을 바꾸고, 실제 관광 객을 방문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며"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SNS 관광콘 텐츠를 시의적절하게 발굴하고, 임실을 널리 알리는 디지털 홍보에 더욱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 >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비로소 보이는 것들' 기획전시

최북미술관서 내달 23일까지

무주군 최북미술관이 12일부터 오는 7월 23일까지 기획展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김성석(개인전 21 회 및 2인전 10회, 국내외 아트페어 및 단체전 다수), 이정웅(개인전 38회, 국내외 단체전, 기획초대전 및 아트페어 다수), 이희춘(개인전 43회, 국내외 아트페어 및 단체전 다수) 3명 작가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로 평면(오브제) 회화, 조각 등 35점이 전시된다.

김성석 작가는 철(鐵)을 주재료로 소·닭·강아지 등 여러 가지 동물을 의인화하면서 감정을 이입한 작품 '귀화(歸化)'와 '밤이슬' 등 13점을 채롭다. 선보인다.

먹과 모필로 캔버스 위에 대상을 그린 후, 각기 다른 길이와 두께, 색 깔, 재질의 책으로 '콜라쥬(collage)' 한 'Old pine tree', '겨울 이야기 '등 이정웅 작가의 작품 12점도 만날 수 있다.

점을 선보이는 이희춘 작가는 동양 의 자연주의와 노장사상에서 기인



한 '무위(無爲)'의 흔적에 근간을 둔 작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나전칠기의 질감을 연상시 키는 꽃과 새, 나비 등의 표현이 다

양정은 무주최북미술관 학예사 는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과거와 현재 작품들을 동시에 고찰, 재조명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자연특별시 무주와도 상 통하는 주제, '자연' 속에서 작품이 주는 감동, 무주 최북미술관만이 드 '화양연화', '몽유화원' 시리즈 10 릴 수 있는 매력을 만끽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지원 본격화

예비 창업자 12명 교육 최종 7명 선정·지원

무주군이 2025년도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최근 예비 창업자 12명을 선발했 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오 는 27일까지 창업 교육(총 60시간)을 진 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교육을 위해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상공회의소, 기술연구원, 대 학, 회계법인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했으며 △창업자금 지원제 도 △마케팅 △세무 지식 △법률 등 분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야에 대한 강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애경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일자리 팀장은 "예비 창업자의 창업 성공 및 지 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추

무주군은 60시간 교육 진행 후 그룹 형 멘토링과 창업경진대회(7.2~4일 중

하루)를 통해 최종 7명을 선정해 창업 에 필요한 리모델링, 초기사업비, 임차 료 등의 비용을 1인당 최대 1천2백만

한편, 2025년도 문화관광형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뿐만 아니라 재료비와 임차료, 홍보비,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채용· 알선 연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 업비 1억 1천여만 원이 투입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상습 침수 구역 대응 합동훈련

재난 발생 대응 체계 점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해 임실경찰 서와 임실역 인근 하상도로에서 '상습 침수 구역 대응 통제 합동훈련'을 실 시했다.

이날 훈련은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 해 3대 유형(산사태·하천·지하공간) 중 하나인 하천 주변의 극한 호우를 가정해 진행됐다.

침수 취약 시설인 하상도로 현장에 서 도로 유실 시 차량 통제 및 우회 도 임실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자동 차단시 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 심 민 군수는 "하상도로와 같은 하천 주변 도로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 우려가 높아 선제적 대응이 중요 하다"며 "이번 여름은 특히 이런 상습 침수 구역을 중심으로 민간보조자 및 유관기관 간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 /임실=한병열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마늘재배 현장 소통행정

농가 애로사항 청취 작황 호조 조공 통해 판매

전춘성 진안군수는 본격적인 마늘 수 확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 성수면 마 늘 재배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 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 다.

이번에 생산된 마늘은 난지형 대서 품종으로써 20여 농가에서 8.1ha 재 배해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조공)을 통해 경남 영천농협에 kg당 3,000원(5cm 구경기준)이라는 높은 가 격에 수매되고 있다.

체 예상 생산량은 266톤이며 예상 수익 은 5억원으로 10a(300평)당 4백만원 이 상의 농가소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분 한 시범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석된다.



한편 진안군은 마늘 농가를 위한 주 산된 마늘을 겨울철 소득작물로 확대 특히 올해는 작황 호조로 진안군 전 요 사업으로 마늘 종구 지원, 마늘 스마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트 기계화 공급 시범 등 국비를 지원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고원에서 생

소통을 통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에 반영하고,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청년정책 발굴·발전 방향 모색

청년 소통 간담회 개최

무주군은 지난 11일 무주군청 대회 의실에서 지역 청년들과 함께하는 소 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 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 군청년정책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 다 자유롭고 즐거운 소통 창구를 만들 석했다.

참석자들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지역 활동 등 무주군에 거주하며 실감 하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 히, 청년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 움을 이야기하고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단가 조정 등 정책개선안을 제시해 관 심을 모았다.

무주군 청년간담회(상·하반기 각1회) 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청년센터 조성 관련, △청년안전기금 활용 방안, △청년정책 협의체 위촉, △청년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청년 취업자 주 거비 지원사업이 올해 시행돼 청년 취

황인홍 무주군수는 "약속한 대로 청 이 자리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향후 년들의 필요가 담긴 의견이 청년정책 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 며 "하반기에는 청년 축제도 마련해 보 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무주군에 거주하는 청년 층은 5,540명으로 올해부터는 청년정 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 로 추진 중이던 정책들을 통합·관리하 고 있으며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위한 28개 사 업에 총 150억여 원을 투입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시군 청년 혁신가 창업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 자 지원 및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등이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의료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진료 개시

전문성바탕맞춤진료제공 의료서비스수준향상기대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난 9일부터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 가정의 학과 진료업무를 시작하며 풍부한 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 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문의 초빙은 필수 진료과목 전망이다. 에 대한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고 그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군은 이를 통해 지역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생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장수군민 다는 방침이다.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진 상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수준 로를 제공하고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 과를 포함해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소 화된 지역 의료 서비스를 선보여 장수 군민의 건강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할

최훈식 군수는 "우리 군민에게 보다 제공하고 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장거리 진료를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감수해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것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장수군 근무를 결정해 주신 선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 이번에 초빙된 전문의는 다년간의 목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

> 한편 장수군보건의료원은 가정의학 아청소년과, 한의과, 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경찰서, 경찰 꿈나무 진로상담・홍보

진안경찰서(서장 홍장득)는 지난 10 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경찰 제 이해 진안문화예술체육회관에서 경 등을 진행했다. 찰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및 각종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활동으로는 경찰 진로상담 박람회 운영에 도움을 주신 진안교육 및 각 기능별 역할 소개, 가정 및 학 지원청에 감사드리며, 이번 박람회가 교 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범죄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 했다.

체험 부스를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상으로 현재 채용제도와 변경되는 채

일 진안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2025 복 입어보기, 수갑 체험, 경찰 장구 소 년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 박람회를 맞 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 배부

홍장득 진안경찰서장은 "지역 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로 진안 관내 학생들의 경찰이라는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돼 우수한 인재들이 국민에게 큰 도움이

/진안=전길빈 기자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완주군 여성단체, 지역 취약계층 밑반찬 전달

완주군 여성단체가 13개 읍면 새마을부녀회 와 연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틈새지원 밑반찬 나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내 홀몸노인, 저소득층 가 구 등 읍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여성들이 사 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 10일 이서면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다양한 종류의 밑반찬을 13개 읍면 새 마을부녀회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직접 준 비하고 이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전북농협-전북동부보훈지청 국립임실호국원서 호국보훈 행사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11일 호국보 훈의 달을 맞아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신 경순)과 함께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30여 명 을 초청해 국립임실호국원(원장 김민화)을 찾 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충탑 합동참배 및 보훈영 상을 시청하면서 애국심을 되새기고 국가유공 자의 헌신에 감사해 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전북농협과 전북동부 보훈지청이 뜻깊은 행사가 됐다.

정광알미늄 김성수 부사장, 장수군에 장학금 200만 원 기탁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 식)은 정광알미늄㈜ 김성수 부사장이 고향인 장수 지역 인재 양성과 학업 지원을 위해 장학 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 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김 부사장이 오랜 시간 간직해 온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 의 마음을 담아 이루어진 것으로 장수의 미래 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희망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폐지등모아장학금박순덕할머니희망쏘다

신천지자원봉사단, 6.25 참전 유공자 초청 보훈 행사

20년 3억7천 기부 최호림 대표 전북공동모금회 유공 표장

돈을 고향 장학금으로 내놓은 할 금까지 3억7200만원에 이르는 기 머니, 3억 넘는 후원을 20년 가까 부를 이어오며 '지역과 함께하는 이 이어온 기업 대표. 두 정읍인의 기업'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경 나눔이 전북을 빛나게 했다.

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 당 유항검홀에서 '희망2025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상자 두 명이 전북특별자치도지 보면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학 사 표창을 받았다. 주인공은 ㈜에 이스안전유리 최호림 대표와 정읍 칠보면 수청리 출신 박순덕(89세)

폐지와 깡통을 모아 평생 모은 여사다. 최 대표는 2007년부터 지 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나눔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감동 을 주고 있다.

박 여사는 폐지와 깡통을 주워 모은 수익으로 마련한 1억 9600만 이날 시상식에서 정읍 출신 수 원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칠 업을 중단해야 했던 자신의 경험 을 떠올리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유항검홀에서 '희망2025 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사진=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공자의헌산을기억합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을 모시고 호 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보훈 행사 가 지난 10일 개최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전북연합회 (연합회장 최중일·이하 전북연합 회)는 임실호국원 현충탑 참배와 헌화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 한 깊은 경의를 표하며 참가자들은 손태극기를 들고, 조국을 위해 목 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통해 탐방 걷기를 시작했다.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들 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묘역 정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봉사 자들은 묘비 주변 청소, 잡초 제거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봉사자들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점심 식사 대접과 다양한 공연 프 로그램도 선보였다. 공연은 노래와 시 낭송, 지역 아이들의 손편지 전 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봉 사자와 참석자들은 붕어섬으로 이





군산 동마산 마을 진재신 이장, 특별한 마을 사랑

눈길을 끌고 있다.

옥구읍 행정복지센터는 직접 사 수거장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 비를 들여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편백 등을 식재하며 마 평소 마을회관 앞 무단투기 되는 을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동 쓰레기로 인한 분쟁도 사라졌고, 마산 마을 진재신 이장을 11일 소 마을을 찾는 외부인들도 청결한

올해 4월 마을 주민들의 추대로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군산시 옥구읍 동마산 마을에 게 보답하는 봉사활동이 어떤 게 있는 특별한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있을까를 고민했고, 고민 끝에 분 리수거장을 생각했다."라고 분리

> 실제로 분리수거장 설치 이후 동네의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는



전주완산소방서,소방동요 경연대회참가팀 격려

'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 '119사랑법'을 선정해 율동과 함께 동요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명재 어린이집 7세반 어린이들을 찾아 총연습 현장을 격려했다.

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오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개 방문해 참가 어린이들에게 격려의 최된다.

대표해 출전하는 명재어린이집 7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방안전 중요성을 주제로 한 동요 합창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 이날 총연습은 명재어린이집에 서 진행됐다.

또 예방안전팀장이 직접 현장을 말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연습에 이번 대회에 전주완산소방서를 임하는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전달



전주대-전주시자원봉사센터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사회봉사센터는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 약을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전주 시자원봉사센터 이경진 센터장을 비롯한 정 원석 국장, 송진옥 팀장, 윤솔지 주임이 함께 했으며, 전주대학교는 황인수 사회봉사센터 장, 김연정 실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상호 네트워크 형성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협력 △봉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비롯해 대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정읍 입암면사무소-파출소 신속협조로길잃은염소주인품에

정읍시 입암면사무소와 입암파출소가 협력 해 길을 잃은 염소 2마리를 주인에게 되돌려 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지난 10일 입암파출소로 "주변에서 염소 두 마리가 방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염소가 인근 농가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였지 만, 파출소에는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남경근 파출소장은 입암면에 도움을 요 청했다.

입암면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홍순 영 면장은 염소 사육 농가 전체에 안내 문자 를 발송했고, 곧 잃어버린 염소의 주인으로부 터 연락이 왔다. 현장에서 무사히 염소를 인도 받은 농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염소들을 무 사히 데려갔다.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와 협조가 더해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한 모범 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지송길 기자 /김영태 기자 선출된 진 이장은 "마을 주민들에 세반 21명과 지도교사 2명은 소 /장수=최진수 기자



내집, 내점포앞에

배출



배출 시간 20시~다음날5시



만요! 버리기전에 확인 한 번 해 주세

검은봉투 배출 금지 투명봉투에 배출



용기안의 내용물 깨끗이비우기



부착상품 제거후 타 재질 분리배출 〈一事一言〉



3대 특검법 의결 - 정의의 문이 열렸다

김관춘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 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 결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중대 한 이정표로 기록될 만하다. 윤석 열 전 대통령 시절 줄곧 거부권에 막혀 좌초됐던 이 법안들이 드디 어 국무회의 문턱을 넘고 공포 절 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 정권의 국정 운 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중대한 의 혹들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진 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가 열리게 됐다.

이번 결정은 단지 법률의 통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곪아 있던 국가 시스템의 상처를 도려내고, 억눌린 정의와 진실을 회복하려는 헌정 질서 복원의 시 도이며, 정치적 권력을 감시하려 는 국민 주권의 실질적 발현이기 도 하다. 그간 많은 국민들이 분 노하며 외쳤던 "진실은 왜 가려 지는가", "권력은 죄를 덮을 수 있 는가"라는 물음에, 이제 국가는 정식 절차를 밟아 답해야 할 시간 이다.

이번에 의결된 3대 특검법은 국 민이 지난 6.3 대선을 통해 분명 히 표출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결 과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각, 군·정보기관 등 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비상 계엄 사건을 정조준한다. 이는 단 순한 정치적 의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행위 이며,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진실 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배 우자가 사인(私人)의 지위를 앞 세워 권력을 사유화했는지에 대 한 수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의혹, 대통령 취임 전후의 각 종 비선 외교 의혹, 무속인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정황은 이미 언론과 국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졌지만, 검찰은 반복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거나 수사를 지연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검 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 기도 했다. 이번 특검을 통해 권 력형 부패와 사적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침으로 써, 대통령실의 도덕성과 신뢰 회 복이 가능할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병영 내 인권 과 공권력의 중립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채상병 순 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 규 명 요구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 다. 해병대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 훈 전 수사단장이 외압을 폭로하 며 군검찰과 갈등을 빚은 사건은, 국민들에게 군의 자율성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 줬다. 이번 특검이 이 사건의 진 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군사 조직 내 정의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다.

이 특검법들은 이전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

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 해 이를 번번이 저지했다. 국회 의 입법 권한이 대통령 1인의 결 정으로 무력화되던 모습은 헌법 적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 치됐다. 이는 곧 권력이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권 력형 의혹에 대해 국민이 직접 확 인할 길을 봉쇄하는 처사였다. 이 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왜곡된 통 치 구조를 바로잡고, 국회의 입법 결과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은 극히 상식적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판단이라 할 수 있

이번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특검 제도 는 종종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됐 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이번 만큼은 국민적 감시와 요구가 매 우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과 법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크다. 추천 과정의 투 명성, 수사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 보장, 정치권의 외압 차단 등 실 질적 제도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 보복' 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 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치 보복 은 권력을 잡은 자가 무고한 이들 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로 혐의를 조작하고 권력을 남용할 때 발생 한다. 이번 특검은 그 반대다. 오 히려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자들 이 법 위에 존재했던 현실에 대 해, 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란 권력의 경계를 법이 정하고, 그 경계를 넘었을 때는 누구든 책임지게 하 는 제도다. 전현직 대통령이든 대 통령 배우자든, 예외가 있을 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다. 6·3 대선에서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것은 '권력의 남용 에 대한 심판'이자, '정의의 회복'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뜻을 제대로 읽고, 그 첫걸음을 3대 특 검법 공포로 시작한 것은 의미심 장한 출발이다. 대통령실 대변인 이 밝힌 대로 이는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제 시 작일 뿐이다. 특검이 법과 증거에 기반해 철저하게 진실을 파헤쳐 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권력의 책무이며, 대한 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 하는 길이다.

이번 3대 특검법의 의결은 '정 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도래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금 일깨 워주는 계기다. 정치적 의혹이 아 닌 법적 진실을 가리는 수단으로 서 특검이 기능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 있게 협조해야 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리게 된 이 들 특검의 문이 왜곡된 사법 정의 를 통한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북 대선공약, 적시(適時)에 차질 없이 이행돼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선에서 제시 된 전북 관련 공약들이 착실히 추진돼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에 대 해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과거 수많은 정부가 대선 공약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기대에 미 치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최근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며 도정이 대통령 공약 이행에 본 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시 의적절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보고 회에서는 전북의 7대 광역공약과 14개 시·군 단위의 78개 사업에 대한 이행 전 략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각 부서가 추 진 중인 법률 제·개정, 제도 개선, 정부 계획 반영 등 다양한 실천 과제들에 대 한 이행 가능성과 정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무엇보다 전북도는 정책공약과 연계 된 국가적 파급력이 큰 사업들을 중심으 로 국정과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 기획위원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 략적인 건의 활동도 본격 전개할 계획이 다. 실국별 핵심 자료를 정비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해 정치・행정 양 축의 협업 체계를 마련한 점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나아가 타 시도와 경쟁이 예 상되는 공약에 대해서도 전북만의 차별 화된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과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 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새 정 부 공약 이행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력

해 중장기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실국 중 심의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 에서 기대가 크다. 이러한 기반 위에 추 진되는 공약들은 RE100 국가산업단지, 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첨단 의료·농 생명 산업 육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구 조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 화, 지역균형발전 등 파급효과 역시 광 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강조 한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와 '문화 산업 중심지로서 전북의 성장 가능성' 또한 단순한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의지가 실질적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려면, 전북도의 계획이 중앙정부 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정과 정치권, 그리고 지역사 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약 이행 의 속도와 질을 높여야 한다.

전북은 이번 대선공약을 실현함으로 써 그동안 낙후 지역이라는 굴레를 벗고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 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 제는 계획과 구호에서 머무를 때가 아니 다. 구체적 실행과 가시적 성과가 요구 된다.

전북도는 끝까지 공약 이행을 추적하 고, 중간 점검과 보완을 반복하며 중앙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정부 역시 전북의 이러한 노력에 진정성 있게 응답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 되는 공약', '성과로 이어지는 약속'이 되 어야 한다. 전북 발전을 위한 이 절박한 기회가 다시는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기 를 바란다.

▲ 오늘의시

저녁 / 송기원

새의 그림자가 길게 끌로 가는 것은 누구일까

땅거미가 야금야금 갉아 먹는 것은 무엇일까

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 시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 수필집 '해남

붉은 옷의 승려가 사는 서녘에서는 마지막 시체가 연기를 피워 올리고

떠난다거나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이미 먼 세상의 일이다

서른세 번, 망자를 거두는 종이 울리면 어렵사리 네가 붙잡은 나마저 사라진다

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4차례 옥고를 다.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 제6회 김동리 년 단편소설 '경외성서'가 중앙일보 신춘 치렀다. 소설 '처자식'과 '아름다운 얼굴', 문학상, 제11회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등 을 수상했다.



내소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목조, 불상

-지정일 - 2018년 3월 9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대표전화 282-9601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전주지시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678-4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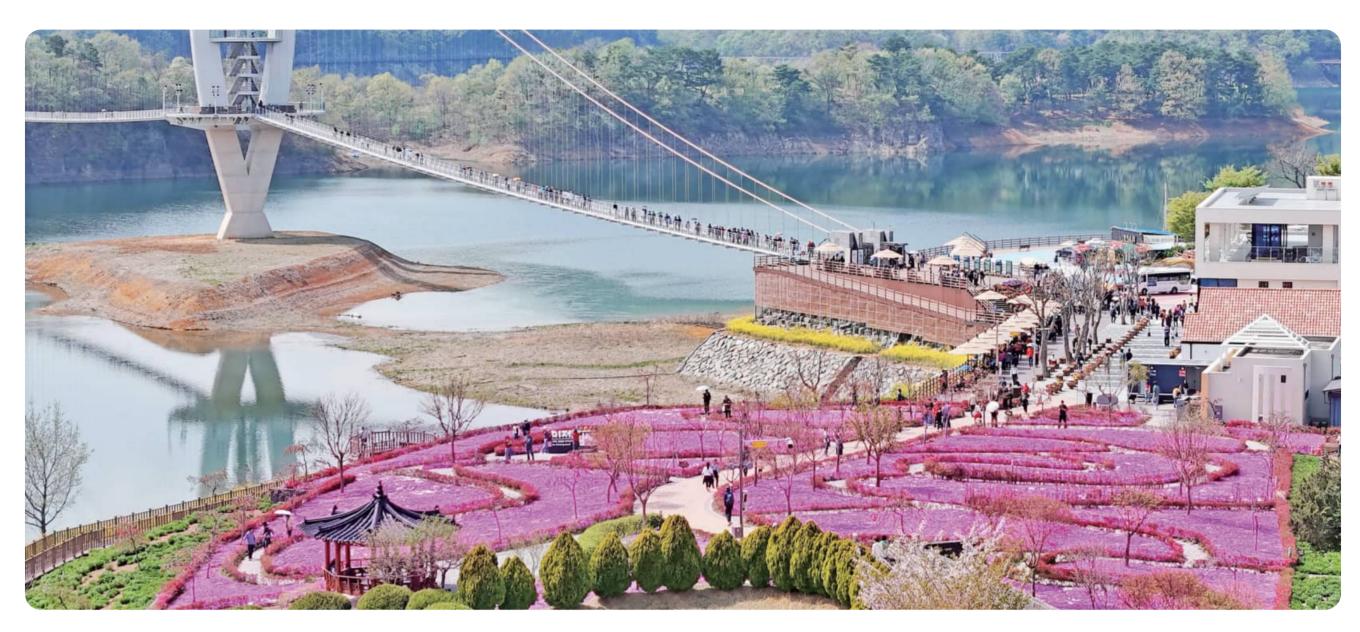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장지국 010-2258-3734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완주지국 010-3672-0308 송천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임실옥정호붕어섬생태공원국민관광지떴다!



운종리 일원·붕어섬 작약・꽃양귀비 만개 절정

붕어섬생태공원. 이곳에 출렁다리가 연 다녀갔고, 주말에는 평균 7000~8000여 결되고 계절별 꽃밭이 조성되면서 전국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역대급 인기를 끌 통해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 에서 관광객이 몰려 일약 국민관광지로 고 있다.

5~6월을 맞아 화려한 작약과 붉은 꽃양 세를 떨치고 있다. 귀비로 뒤덮이며 아름다운 장관을 선사,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옥정호 끌고 있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은 전국에서 가 다. 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뽐냈다.

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은 3월 개장 30,000본(7,200㎡)의 작약은 5월 초순 한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 위치한 이후 5월까지 유료 관광객만 20만명이

예년 같으면 가을에 국화꽃과 구절초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수많은 관광 현재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일대가 객이 찾으면서 최고의 관광명소로 유명

실제 지난 5월 4일에는 황금연휴를 맞 봄의 붕어섬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출렁다리 개통 이후 단일 기준 최고인 12,000㎡ 규모의 꽃양귀비밭은 바람에

붕어섬 생태공원에 식재된 24,000 사계절 경관 꽃들이 조성된 옥정호 출 본(6,000㎡), 운종리 작약밭에 조성된 자아냈다. 두 송이씩 피어나기 시작해 5월 말 만개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화려함은 SNS를

특히, 섬진강 다목적댐으로 조성된 인 한마디로 유료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 필 무렵에 평균 8000여명 안팎의 관 공호수인 옥정호를 배경으로 한 작약꽃 역대급 관광객이 방문해 효자노릇하고 광객이 찾았지만, 올해는 봄부터 전국 받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절경으로 손꼽히며, 촬영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작약에 이어 붉게 피어난 꽃양귀비도

붕어섬 생태공원과 요산공원 일대 임실군에 따르면 꽃들이 만개하면서 9200여명이 찾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 흔들리며 붉은 물결이 출렁이는 듯한 풍

붕어섬 생태공원은 사계절 내내 꽃을 하고 있다.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 봄에는 심 민 군수는 "붕어섬 생태공원의 호 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약과 꽃양귀비뿐 아니라 알리움, 마가 수를 에워싸고 알록달록 화려하게 피어

경을 연출, 태양 아래 더욱 선명하고 강 렛, 델피늄, 이소토마 등 다양한 초화류 난 작약꽃과 붉은 꽃양귀비가 많은 관광 렬한 색감을 뽐내며 방문객들의 탄성을 가 화단과 화분 곳곳에 식재되어 방문객 객을 매료시켰다"며 "가족과 연인, 지인, 들에게 다채로운 봄의 아름다움을 선사 이웃들과 오셔서 아름다운 호수인 옥정 호를 둘러싼 봄꽃들의 향연을 만끽하시

/임실=한병열 기자







